



천주교 마산교구 합천 죄인들의 피난처 Cu.

678-807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3길 10 / 전화(055)931-1283 / FAX931-1294

문서번호 : 합천Cu. 제16 - 6호

시행일자 : 2016. 06. 16

수 신 : 합천Co 평의회의원

참 조 : 평의회 영적지도자

제 목 : 제358차 평의회(5월)계획서

선 결	단 장		지 시	
접 수	일 자		결 재	부 단 장
	시 간			
	번 호		공 략	서 기
처 리 과				
담 당 자				회 계

1. 시작기도 : 단장계 / 목주기도 환희의 신비 5단 - 부단장계
2. 영적독서 : 마태오복음 6장 24절 - 34절
3. 선거 및 예고 : 없음
4. 통신교환

가. 수 신 : 2건

- 1) 443차 꼬미시움평의회(6월) 계획서 1부
- 2) 442차 꼬미시움평의회(5월) 회의록 1부

나. 발 신 : 3건

- 1) 359차(6월) 평의회 계획서 1부
- 2) 358차(5월) 평의회 회의록 1부
- 3) 월례보고서(5월) 1부

5. 회계보고 : 별지 참조
6. 사업(종합)보고 : 은총의 모후 pr.(논평 - 찬송하을 모후 Pr.)
7. 사업 (종합)보고 지명 : 찬송하을 모후 Pr.
8. 순방지명 : 은총의 모후 pr.
9. 지시사항

가. 교구장님 지시사항 적극 실천하기

- 평일미사 주2회 이상 참례, 성체조배 및 1일 30분 이상 내적 침묵,

가정기도 생활화

- 성경 읽고 쓰기 운동 전개 - 전 단원 루카복음 9월말까지 필사하기
- 각 평의회별로 고통 받고 소외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실천 방안 마련하기

나. 2016년 레지아 활동 중점 실천사항인 1.1.1운동 적극 전개하기

10. 공지사항

- 생명나눔, 사랑나눔 콘서트(장기기증) : 7월 2일 저녁7시~8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

11. 기타사항(합천성당)

- 독거노인 및 복지의 사각지역에 놓인 불우이웃 Pr.별로 월 2회 이상 돌보기

12. 다음 평의회 예고

-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밤 8시 10분
- 장소 : 천주교 합천성당 강당

붙임 : 2016년 5월 회계보고서 1부. 끝.

천주교마산교구 레지오 마리에 합천 죄인들의 피난처 꾸리아

단 장 : 김성수(아오스딩)

담당사제 : 이 민 (베드로)

2016년 5월 수입과 지출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원)	2016년 누 계	항 목	금액(원)	비고
전월 이월금	918,976				
상아탑		100,000	Co. 차량비	20,000	
인자하신 동정녀		70,000	Co. 의연금		
사랑하올 성모	26,000	26,000	연차총친목회		
천주의 성모			월간레지오마리에		
은총의 모후	30,000	150,000	회의록, 계획서		
착한의견의 모후		81,000	Co. 순방		
정의의 거울	30,000	90,000	아치에스 행사		
셋 별		10,000	죄인들의 피난처 제28차 종합보고		
찬송하올 모후		147,000	2017년 레지아발표회		
공경하올 모후		95,000	단장 워크샐		
예금 이자			위령미사		
아치에스빨랑카			성모의 밤 꽃대	70,500	
성모의 밤			레지오단장간담회		
월 계 / 누 계	86,000	769,000			
수 입 합 계	1,004,976		지 출 합 계	90,500	
			현 잔 액	914,476	

6월 영적독서

마태오복음 6장 24절 ~ 34절

하느님이나, 재물이나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세상 걱정과 하느의 나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28.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 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30.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31.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